

새롭게 조명되는 역사인물의 삶

본격화하는 인물연구서와 評傳 출판

수준높은 인물연구서 및 평전의 출판이 활발해지고 있다. 우리가 그동안 단편적이고 피상적으로만 알아왔던 역사적 인물의 삶과 업적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밝혀주는 이들 연구서는, 높은 학문적 수준을 보여줌과 아울러 흥미있고 부담없는 읽을거리로 독자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연구대상 인물도 정치가, 사상가, 문인을 망라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시대적으로 조선시대부터 일제치하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편차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사상적으로 좌파적 입장에 섬으로써 금기시돼왔던 사람까지 다루고 있어, 시대 속에 고뇌하는 개인의 모습을 뚜렷이 부각시켜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지금까지 역사적 인물에 대한 전기라 하면 도덕적 교훈을 주목적으로 하는 아동용 위인전이나 다분히 미화된 회고록의 수준을 크게 넘어서지 못했던 것이 사실. 그러나 최근엔 金允植교수나 金學俊교수처럼 학문적 차원에서 작가나 정치가에 대한 평전식 연구서를 내놓는 등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학계에서도 점차 확산되어가고 있다.

작가연구에 새 지평

특히 근년에 이르러 傳記 자체의 방법론이 일화집이나 연대기적 사실 나열에서 벗어나 비판적 해석주의로 변천함에 따라 한 인물에 대한 총체적이고 유기적인 형상화에 주력하게 되었다. 이때 연구자는 주어진 자료를 수동적으로 배열하는데 만족하지 않고, 이를 적극적으로 용해해서 자기가 해석하는 방향으로 대상인물의 정신적 모습을 재구성한다. 金允植교수의 일련의 저작들은 이러한 '비평적 전기(critical biography)'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제시될 수 있을 듯하다.

평소 '말로 뛰는 학자'임을 자임해온 김교수는 몇번씩 현재만을 건너 우리나라에선 구할 수 없는 자료를 찾아 일본의 도서관을 뒤지는 수고를 감행했다. 그 결실이 바로 3권에 달하는 「李光洙와 그의 時代」(1986, 한길사)를 비롯, 「安壽吉研究」(1986, 정음사) 「염상섭研究」(1987, 서울대 출판부) 「金東仁研究」(1987, 민음사) 「李箱研究」(1988, 문학사상사)로 나타난 것.

방대한 자료를 치밀하게 분류·분석하여 한국근대문학에 새 이정표를 세운 이들 저서는 작품과 생애의 유기적 관련을 통해 작가의 내면풍경을 탁월하게 밝히고 있다. 실증주의적 연구방법을 견지해온 그가 '전기적 방법'



최근 단편적으로만 알려졌던

역사적 인물의 삶과 업적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밝혀주는

인물연구서와 평전이 활발하게

출판되고 있다. 방대한 자료수집과

엄밀한 연구분석으로

높은 학문적 수준을 보여주는

이들 저서는 독자들에게도

흥미있는 읽을거리로

환영받고 있다.

에 눈을 돌리게 된 것은 70년대 중반부터. 작가가 처한 시대적 배경, 성장환경, 교육, 직업, 교우관계, 애정관계 등에 관한 정보를 토대로 작품의 핵심 주제까지 파고 들어가는 김교수의 작가연구는, "자료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객관성을 잃고 있으며 지나치게 서구적 '근대론'에 매달려 있다"는 비판도 일부에서 받고 있으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광범위한 자료의 섭렵과 왕성한 필력은 후학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고 있다. 김교수는 일제시대 좌파문학의 이론적 맹장이었던 林和에 대한 연구서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의 남북시인 작품집 해금에 때 맞춰 金澤東교수의 「鄭芝溶研究」(1987, 민음사)와 「金起林研究」(1988, 새문사)도 서점에 선을 보이고 있다. 한국문학의 실지회복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이들 저서는 오랫동안 타의에 의해 잊혀져왔던 작가의 생애와 작품에 대한 본격적인 최초의 접근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듯하다. 김학동교수는 앞으로 「白石研究」를 집필하는 등 한

국문학사에 미아로 남아 있는 작가들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여 현대문학의 공백기를 메울 것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격동하는 시대 속의 정치인의 초상

이러한 인물평전은 정치학 분야에서도 시도되고 있다. 일제의 폭정, 해방, 전쟁, 독재와 혁명의 소용돌이가 계속된 격동의 현대사에서 나름대로의 정치적 이념을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해 활약한 인물들에 대한 연구는 역사적 가치 외에도 오늘의 현실에 대한 좋은 참조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金學俊교수는 지난해 「李東華評傳」(1981, 민음사)을, 최근 「街人 金炳魯評傳」(1988, 민음사)을 냈는데, 이들 저서는 그가 기획하고 있는 한국政治傳記學총서의 제2권과 제3권에 해당한다. 「李東華評傳」이 일제치하부터 오늘날까지 민족주의 좌파에 서서 싸워온 한 민족사회주의자의 생애를 살피고 그것을 통해 민족주의 좌파의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 것이라면, 「街人 金炳魯評傳」은 일제치하부터 1960년 중반 별세까지 민족주의 우파에 서서 살아온 한 자유민주주의자의 생애를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김교수는 총서 제1권으로 기획한 항일독립운동가를 다룬 저서를 올해 상반기에 낼 예정이고, 이어서 제4권으로 해방 이후 우리나라 정치학 발달에 선구적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는 민병태교수의 생애를 다룬 「한국의 정치학 발달과 閔丙台」를 출간할 계획이다.

이와 아울러 李基燧씨가 저술한 「여운형」(1988, 창작사)은 해방 직후의 급박한 전환기에 자주정부 수립과 민족통일을 위해 분투하다 암살당한 몽양 여운형의 일대기다. 상해에서의 활동, 건국준비위원회, 좌우합작운동 등 중도좌파의 입장에서 민족해방을 위해 분투하던 그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엿볼 수 있다.

시간을 뛰어넘어 모범이 된 先人들

이처럼 우리시대와 가까운 근대 이후의 인물 연구가 활발해지는 한편으로 조선시대 인물에 대한 연구도 착실히 진행되어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중에서 丁淳睦교수의 「退溪評傳」(1987, 지식산업사)은 조선시대 유학의 거봉인 퇴계 이황의 생애와 사상을 엄밀한 고증을 통해 쉽고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으며, 「鄭汝昌研究」(1987, 집문당)는 주자학의 대가인 일두 정여창의 생애를 13세손인 鄭在景씨가 엮은 것으로서, 무오사화에 휩쓸려 유배지에서 일생을 마치고까지 도학자, 교육자이자 이상적인 사회건설을 꿈꾸었던 사상가로서의 일두의 모습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이밖에 金泰俊교수의 「洪大容評傳」(1987, 민음사)은 조선 후기 북학과 실학의 대가인 담헌 홍대용의 일생을 다룬 것이며, 兪東濬씨의 「兪吉濬傳」(1987, 일조각)은 개화기의 대표적 지식인이자 선각자로서 「西遊見聞」의 저자이기도 한 유길준의 생애를 그리고 있다.

이러한 인물연구서 및 평전의 출간은 오늘을 사는 한국인들이 우리의 선조로부터 과연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에 대해 좋은 안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창작과 비평사는 현재 申承浩의 전기를 준비중이고, 지식산업사는 金時翬와 鏡虛스님의 전기를, 그리고 대우학술재단은 丁茶山 평전을 계획하는 등 평전 출판은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朴忠錫교수(이화여대 정의과)는, 그동안 한국사상사에 대한 연구가 부단히 추진되어왔고 수많은 업적이 나왔지만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사상사의 기초적 연구 영역이라 할 수 있는 개별 사상가의 생애·학문·저작에 대한 종합적 연구가 부족한 것이 아쉬웠다"면서 이 방면의 연구에 대해 환영을 표시했다.

金允植교수(서울대 국문과)도 "전기적 연구란 보통 작가론보다 일층 섬세하고 깊은 곳까지 탐구의 저울추가 내려갈 수 있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엄격한 문헌학적 바탕과 방법론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꼭 출판되어야 할 인물에 대한 연구가 아직 나오지 않는 것을 생각하면, 학계와 독자로부터 다같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인물평전의 더욱 활발한 출간이 기대된다.

—남진우 기자